



2010년 01월 ~ 03월 제32호

소식지



장애인 생활시설

성프란치스코의 집

성프란치스코의 집 “또 하나의 가족”
바로 여러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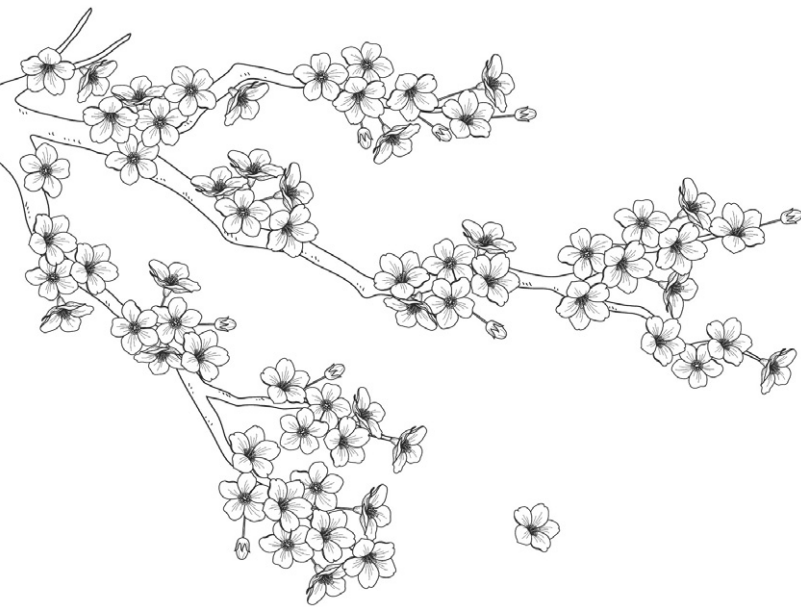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 가지에서, 물 위에서, 독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CONTENTS

2... 계절인사

4... 여는 글

6... 우리들의 이야기

_ 까치 설날? 우리 우리 설날!

9... 작은여백

_ 설 봉사활동을 마치고...

10... 작은여백 II

_ 2년간의 사회복무를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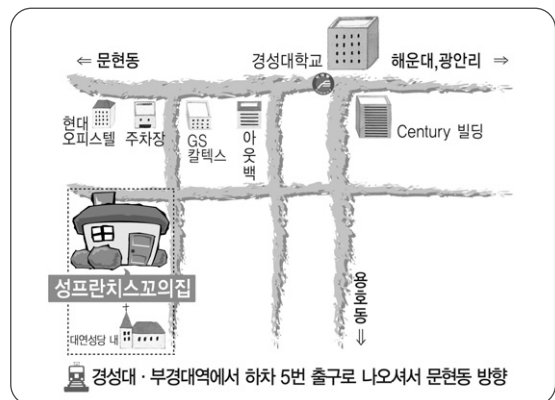
11... 우리들의 발자국

12...우리집 동정

13...라파엘의 그림세상

14...당신이 머무는 자리

발행일 2010년 4월 3일(토)(제32호)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집
발행인 임태호
편집인 박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90번지
전 화 622-1652, 626-5766
팩 스 622-1625
e-mail fran1652@hanmail.net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인 쇄 (주)아임커뮤니케이션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 Oblige)〉란 말을 아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서구 상류 사회의 의식과 삶을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 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이것은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적 의식과 술선수범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류층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 부유층들이 부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로서 자선과 기부를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실제 오늘날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부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부문화가 발달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역시 건국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쳤으며 약육강식의 사회적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업 경영에서 최초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강철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자로 죽는 것이야 말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카네기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신탁해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진흥과 교육 및 문화 사업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베풀고 지원하는 것은 **“부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카네기의 철학은 미국의 많은 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후 이어진 부유층들의 자선사업과 사회 기부는 미국 사회를 성숙하고 건강하게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

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버틸 수 있는 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개인기부 참여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연평균 85%에 이릅니다. 이렇게 기부가 활성화된 것에는 예전에도 그럴지만 지금도 사회지도층의 영향이 무척 큼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경영에서 물러난 뒤 자신과 부인이 세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400억달러 (약 50조원)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부자인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83%를 이 **〈게이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이 “왜 당신이 새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곳에 기부하지 그랬느냐?”는 질문에 그는 “게이츠가 운영을 잘 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밖의 부자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도 수많은 자선과 기부를 통해 신분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일회성 기부가 대부분입니다. 또 기부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자식들에 대한 증여와 상속의 방법으로 각종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 기부 대상 기관에 대한 신뢰감 부족과 기부 정보의 부족 뿐 아니라 제도와 법률도 성숙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소액기부〉**, **〈재능기부〉** 등 일상에서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20, 30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을 통한 상품만을 구매하는 소비, 곧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한 이들이 거창하고 자기희생적인 행위로 여겨지던 기부 문화에 산뜻한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

니다. 전통적으로 기부의 주체는 40대 이상 장년층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소액 기부〉, 돈 대신 전문 능력을 기부하는 〈능력 나눔〉 등. 기부의 방법이 다양화하면서 20 3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모 일간지의 연재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기부 형태는 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담론 대신에 일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20, 30대는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이들이 하는 선행의 동기 역시 이전 세대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자신이 빈곤했으므로 이제 다른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은 선행을 통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남 보기 부끄럽지 않은 거액을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내놓는 것이 기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부 자체를 끊임없이 미래의 일로 미루게 만드는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들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결혼이다', '집 장만이다' 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들 젊은 층들은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적은 액수라도 일단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능력 나눔〉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고 즐기는 것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능력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훌륭한 기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복음(25, 31-

4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옥좌에 앉은 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갈라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며,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고

기부가 생활화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부도 몸에 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데 주저하고 인색한 사람과 반대로 가진 재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좋은 일을 위해 선뜻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다면 부자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기에 부자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가진 돈·시간·능력을 나누는 이들이야말로 말로 재력가이고 능력가이고, 많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 곧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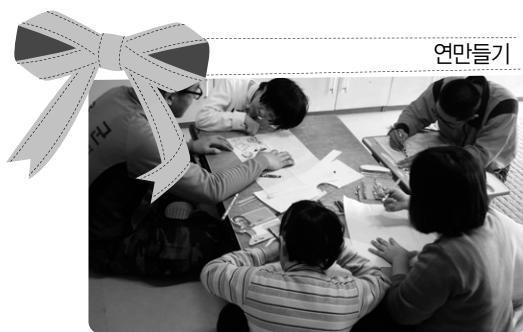
프란치스코의 집을 돕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물적으로, 또 많은 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기에 인적으로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영적으로도 부자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동기 신부

까치 설날? 우리 우리 설날!



연만들기



2010년 설에는 자매 결연 단체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5통신지원대대**와 함께 했습니다.

연휴 첫 날 오전 프로그램인 "소원 연 만들기"에 우리 가족들과 짝을 지어 연날리기 대회에 사용할 소원 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시상식이 있어서 그런지 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등 갖가지 도구들을 총 동원해 꾸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봉사자 분들도 처음에는 가족들과 어색해 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오빠처럼, 형처럼 의논하며 재미있게 연을 완성했습니다.

세배하기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설날 아침에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원장 아빠와 수도원 안토니오 신부님께 세배 드렸습니다. 세뱃돈을 주시며 건강하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웃놀이



세배가 끝나고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 속에 웃놀이를 했습니다.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의 '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말이지요.^' 웃이 던져질 때마다 한 팀은 환호를, 한 팀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2팀이 우승을 하자 1팀은 축하의 박수를, 1팀은 2팀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서로 치며 웃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원 연 날리기



소원 연 날리기 대회를 위해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만든 소원 연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 날리기 대회의 심사는 아빠께서 해주셨는데, 심사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높이 잘 날리는 지입니다. 상품은 아이스크림과 도넛 상품권 그리고 여러 간식들이랍니다. 그러니 살짝 추워도 열심히 연을 띄워야겠지요? 서로의 실이 엉키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달리기도 하는 웃음이 많았던 즐거운 대회였습니다.



돌림판

설 연휴 마지막 프로그램은 ‘돌림판 돌리기’ 게임입니다.

간식이 그려진 돌림판을 돌려서 막대가 향하고 있는 것을 상품으로 받는 게임입니다. 옛날 과자가 상품이었는데, 작은 과자 하나지만 혼자 먹지 않고 이모와 삼촌들, 친구들과 나눠먹는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에게 ‘나눔’을 배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올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설 봉사활동을 마치고..



거주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었다. 봉사활동하기 전에 간단히 주의사항을 듣긴 했지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소원 연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거주 장애인들도 의사표현이 서툴기는 해도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는 것 같았다.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몇 번씩 다시 물어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답답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대

에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오병훈 이병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가람방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가오리 연을 만들다보니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부족한 실력으로 만든 연이지만 가람방 친구들이 설날 연날리기 대회 때 연을 날리면서 소원을 이루었으면 한다. - 장창식 병장

설 연휴인데 군인이라 집에 못가서 우울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과 함께 연을 만들었다. 거주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고작 2년 동안만 자유롭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다.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 동안 나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 군 생활 하는 동안, 그리고 전역해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 조석민 이병

처음 해 본 봉사활동이었는데 이곳에서 얻은 게 참 많은 것 같다. 설 연휴에 봉사활동을 하니 뿌듯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 곳 거주 장애인을 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 임태경 일병

청소나 빨래 등 노력봉사를 예상하고 왔는데 거주 장애인들과 연을 만든다고 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나를 거주 장애인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같이 연을 만들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기뻐다. - 정범집 이병

- 봉사활동 소감문 중

설 연휴 첫 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5통신지원대대에서 우리 가족들과 소원 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연휴에 쉬지 않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간의 사회복무를 마무리하며...



공익근무요원 김 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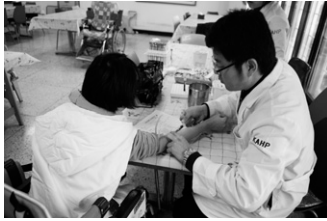
처음 성프란치스코의집 복무를 지원할 때만 해도 이곳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후, 구청에 가서 담당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2년간 생활하게 될 성프란치스코의집에 갔는데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였다. 시설관리를 하시는 김용국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첫 날을 마무리했는데, 다음날부터 시작된 근무는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선임이 있어서 일을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서 큰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 없이 없었다. 선임이 소집해제를 한 후 혼자 복무하게 되었는데, 함께 여러 가지를 공감하고 나눌 동료가 없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무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재할원 가족들과 많이 친해져서 가족같이 편안했고, 후임이 들어와서 혼자라는 생각은 잊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갑자기 대유행한 신종 플루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일들이 직원과 복무요원들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다들 그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덕분에 나도 주방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이모님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던 시간이다.

이제는 복무를 마치고 그동안 잠시 내려놓았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앞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2년간 몸담은 이곳은 항상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김경수 공익요원은 복무하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이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 한식, 북어 등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종플루로 봉사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주방에서 큰 몫을 해냈습니다. 경수삼촌~ 어디서든 삼촌의 자리에서 잘 해내리라 믿어요,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생활하기 위해 혈압 체크, 채혈, 엑스레이 촬영 등 **정기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는 주사 바늘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더니, 채혈 후 아프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멋쩍은 웃음만 지어보였지요. 울지 않고 용감하게 피를 뽑은 우리 햇님방 가족들은 자랑스럽게 팔을 내밀어 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인 '성프란치스코의집 해피로그'에서 진행되었던 2009년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모금함이 종료되었습니다. 총 1,580,900원이 모금되어 딸기밭 체험, 유람선 승선, 밀레니엄파크 이용 등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에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꿈인 서동민의 **학원비(바론만화전문학원)로 사용하기 위한 라파엘의 그림세상** 모금함이 신설되었습니다.(그 동안 지원받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

눔' 지원사업 종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 라파엘의 그림세상 → 콩 기부



2009년 12월부터 실시한 '자원봉사 단체 활동 평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종 플루 등으로 지난 해 11월 한 달동안 봉사활동이 중단되어 평가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총17개 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하고 2010년에도 지속하게 되었고, 3월부터 자원봉사단체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봉사단체의 대표께서는 해당 교육 일자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평가 때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적극 수렴해

서 보다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름	내용	날짜	내용
김학선	퇴소	2월 1일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퇴소	2월 1일	천마재활원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은별	입소	1월 6일	햇님방 막내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졸업했습니다!

학교명	과정	이름
해남학교	유치부	한은별
	초등부	배한주, 신동훈, 우지영, 윤혜미
	중등부	양호근, 전미란
	고등부	신선교, 정현욱
	전공부	김성수, 김우정
해성학교	초등부	김은진
	중등부	임제민
	고등부	강연주, 김보미, 김보희, 김세진, 박성혜, 정유리
	전공과	유창선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디지털전자과	엄상윤
대연정보고등학교	관광경영과	최치현

대학입학 _ **정현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에 합격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취업 _ **최치현**은 CJ푸드빌(주) 빙스 덕천점에 취직되어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미·사·안·내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날짜 : 4월 15일 / 5월 13일 / 6월 17일
- ♥ 시간 : 오후 7시 30분
- ♥ 장소 : 대연성당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곳... 성프란치스코의집으로 당신을 보내세요.

자원봉사/후원

(2010년 1월 1일 ~ 3월 31일)

| 가사지원-목욕 |

김민호 김민성 김성규 김영찬 김우진 김지은 김태형 남선현 박재홍 박현준 서강래 서민경 성세훈 이재훈
귀족의뜨락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보건교사회 부산30대의힘터

| 가사지원-세탁 |

김영미 김영선 김정숙 노민자 서영숙 성꼭지 이강연 이복금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심모후(석포성당)/교회외어머니,상자의옥좌(우동성당)/능하신정녀,영광의 성모(남천성당)/루르드의성모,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성실하심어머니(연산성당)/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부산여성회관수선팀

| 가사지원-이·미용 | 뉴부천미용실 뮈헤어

| 가사지원-주방 |

강경훈 고봉희 김경선 김명룡 김보자 김영미 김영혜 김도훈 박삼식 박양주 박영자 서성자 손희정 양준석 양호원 옥민우 윤영주 윤은미 이경자 이명자 이상재 장승한 장영애 정정자 조광유 최신영 최재상 최진영 한 승
능하신어머니(남천성당)/성가정의어머니(우동성당)/지혜로우신동정녀(남천성당)

| 기술지원 | 김성필 소금별 PAM

| 노력봉사 |

김말분 백정희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대전3동한국무용단/동정녀들의어머니(남천성당)/망미독서회/바로미/솔잎/여럿이함께/즐거움의원천(우동성당)/청소년팀/정승희/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 업무보조 | 정화음 PAM

| 프로그램(여가 외) |

김영주 김영진 문영미 방인성 이도영 이승원 장미정 정화용
민심사랑 부산맛집살집 부산장애인체육회 사랑나눔터 여럿이함께 우암동주민센터 정명릉도예공방 하안비둘기사랑모임

|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

김수빈 김수완 김영진 김준성 박수진 백성희 양대웅 이도영 장미정 정화용 천 령 최상주
민심사랑/부산맛집살집/사랑나눔터/여럿이함께/정명릉도예공방/하안비둘기 사랑모임

| 의료지원 |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 학습지도 |

고권진 김민수 김주성 김초원 김혜진 서민경 서지현 손은선 신미정 신아름 안익진 여정은 옥수정 이신애 이아름 이은진 이정민 장정안 전희숙 조화영 홍연미 황현우

| 신규후원 |

박동석 박화진 서양숙 신정복 염상훈 이임건 이재영 이주안 정순자 조주현 추미숙 캐서린

| 개인후원 |

김민정 강수무 강영규 강영숙 고남우 고영실 고평년 공병우 공숙희 공태임 광두성 광영호(요셉) 광익수 구대창 구복연 권오봉 권오석 김건우 김경란 김경은 김경호 김근제 김근태 김기순 김대희 김도훈 김동준 김말분 김명재 김명환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혜 김보순 김봉균 김상욱 김상태 김선미 김세곤 김송기 김수완 김숙희 김순기 김시교 김양희 김연수 김연순 김영경 김영철 김옥석 김용제 김유진 김윤성 김윤희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민경 김임수 김재민 김장남 김장남 김장범 김정엽 김장욱 김장주 김정현 김정환 김정희(부산은행) 김종완 김주식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 김진희 김태훈 김혜인 김현상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형우 김효식 김희숙(요안나) 남기환 남숙희 남용근 노명자 노병덕 노옥희 도재훈 류애라 류양아 류용희 류인희 문병호 문영란 문영현 문종원 문한선 민남식 박경숙 박귀자 박민정 박관란 박상해 박승부 박승철 박영하 박용욱 박용태 박운정 박재식 박지영 박태원 박형재 박혜경(오티리아) 박혜경(마리아) 박해림 박혜숙 배영선 배윤지 배윤희 배은옥 배일태 백광점 백광현 백운수 변시문 변재호 서경열 서승욱 서승환 서재식 석숙희 성락춘 성병호 손윤경 손종식 송금이 송수복 신 동 신덕자 신민철 신순숙 신승인 신운봉 신준설 신현대 심영숙 안연순 안연애 안영태 안장근 양동근 양봉근 양선석 양재목 양향열 엄경희 엄갑춘 오순남 오희수 우재성 우준식 우창렬 유경근 유경근 유병규 유성재 윤도석 윤영철 윤종렬 윤종태 이간상 이경자 이계택 이금숙 이기현 이대희 이동세 이동숙 이득희 이미란 이마자 이병제 이상수 이상록 이상만 이세원 이순주 이술재 이신호 이영희 이옥분 이은일 이임수 이재용 이재우 이재훈 이정민 이정희 이종호 이진아 이찬구 이혜운 이형래 이희계 임순애 임승재 임용하 임웅혁 임인학 임재경 임재근 임철제 임춘희 장명숙 장승한 장연주 장지영 전병영 전윤남 전태봉 정 란 정남희 정두환 정민선 정성미 정성민 정수태 정숙희 정승원 정영규 정영이 정옥희 정영식 정윤주 정종원 정종환 정찬중 정찬현 정준자 정태성 정태웅 정희정 제노베파 조경숙 조말범 조명희 조영현 조옥련 조용철 조현영 조혜경 주미혜 주선포 주성균 주정삼 지치안 진혜숙 차성진 천장호 최가진 최경남 최경수 최경실 최금숙 최동훈 최만구 최민희 최복례 최순애 최성일 최숙자 최순자 최승근 최인나 최영훈 최옥희 최용욱 최윤선 최종득 최진욱 최창희 최혜순 최혜진 표상록 하경태 하미원 하복춘 하치순 하혜숙 한동미 한만섭 한명관 한미애 한수남 한영희 한일선 허 현 허순이 홍해숙 홍혜순 황영복 황은숙 익 명

고려병원정형외과(박원욱)/동아대병원소아비뇨기과(조원열)/바른논안과/박영호치과/박창수한의원/성모병원가정의학과(정현주)/최원만의원

| 기업후원 |

국민연금관리공단부산지사/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동서합동(관)/동성무역(주)/소프트라인(주)/원창ENT/유카로오토모빌/파라다이스글로벌(주)

| 결연후원 |

김민정 김선자 김영순 김정애 김현정 박병준 박상현 양희국 이정민

1 단체후원

가톨릭설비회/고려원자력본부/남부경찰서여경회/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성인 장애인여가증진프로그램지원비,행복플러스캠페인)/성가정어머니(가장성당)/성모 여자고등학교/이마트단체지원/하늘의문(대연성당)/후원협의회/후원회미사봉한금

2 모금함후원

대연성당성물방/미사수영점/오륙도낙지북음/조선갈국수경성대점/평화장터

3 물품후원

강준모 김한나 김현석 박삼식 박윤정 백광현 신민정 이영섭 장영표 이정오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남부지사/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남부 소방서/동성구역/박창수한의원/부산박물관직원상조회/부산시청건축주택과/샤론의꽃/세종클럽/씨티은행남천지점연계익명/아이올라/예천농산/오륙도낙지북음/청솔회/파리바게뜨대연점/하얀비둘기사랑모임/한국음식업중앙협회부산지회/익명

4 해피빈 후원

해피로그에서 후원자 명단과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41,507,950	의료비	582,650
지정후원금	18,710,528	사무비	10,374,091
비지정후원금	28,013,330	사업비	5,287,931
결연후원금	310,000	인건비	4,441,140
		프로그램사업비	4,273,833
		시설비	1,304,700
계	88,541,808		26,264,345

2010년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1차)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예산액	구성비	2010년 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계	1,340,000	100.00%	1,350,000	100.00%	-10,000
세입	사업수입	9,000	0.67%	9,000	0.67%	0
	보조금수입	1,047,047	78.14%	1,047,047	77.56%	0
	후원금수입	220,000	16.42%	220,000	16.30%	0
	차입금	453	0.03%	453	0.03%	0
	전입금	0	0.00%	0	0.00%	0
	이월금	49,184	3.67%	60,000	4.44%	-10,816
	잡수입	14,316	1.07%	13,500	1.00%	816
	합계	1,340,000	100.00%	1,350,000	100.00%	-10,000
세출	사무비	1,024,065	76.42%	1,024,065	75.86%	0
	재산조성비	129,760	9.68%	140,160	10.38%	-10,400
	사업비	172,276	12.86%	171,776	12.72%	500
	잡지출	499	0.04%	499	0.04%	0
	예비비	13,400	1.00%	13,500	1.00%	-100

◎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연락주세요~

☎ 622-1652

◎ 소중한 후원금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2009년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예산액	구성비	2010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세 입	합계	1,317,016	100.00%	1,380,000	100.00%	-62,984
	사업수입	4,450	0.34%	5,900	0.43%	-1,450
	보조금수입	1,050,694	79.78%	1,085,653	78.67%	-34,959
	후원금수입	177,731	13.49%	200,000	14.49%	-22,269
	차입금	58	0.00%	90	0.01%	-32
	전입금	0	0.00%	0	0.00%	0
	이월금	75,257	5.71%	75,257	5.45%	0
	잡수입	8,826	0.67%	13,100	0.95%	-4,274
세 출	합계	1,317,016	100.00%	1,380,000	100.00%	-62,984
	사무비	954,048	72.44%	1,021,650	74.03%	-67,602
	재산조성비	153,607	11.66%	163,000	11.81%	-9,393
	사업비	159,276	12.09%	180,952	13.11%	-21,676
	잡지출	0	0.00%	598	0.04%	-598
	예비비	901	0.07%	13,800	1.00%	-12,899
	2010년 이월금	49,184	3.73%	0	0.00%	49,184

2010년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2차)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예산액	구성비	2010년 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계	1,358,460	100.00%	1,340,000	100.00%	18,460
세입	사업수입	9,000	0.66%	9,000	0.67%	0
	보조금수입	1,065,507	78.43%	1,047,047	78.14%	18,460
	후원금수입	220,000	16.19%	220,000	16.42%	0
	차입금	453	0.03%	453	0.03%	0
	전입금	0	0.00%	0	0.00%	0
	이월금	49,184	3.62%	49,184	3.67%	0
	잡수입	14,316	1.05%	14,316	1.07%	0
	합계	1,358,460	100.00%	1,340,000	100.00%	18,460
세출	사무비	1,024,065	75.38%	1,024,065	76.42%	0
	재산조성비	148,035	10.90%	129,760	9.68%	18,275
	사업비	172,276	12.68%	172,276	12.86%	0
	잡지출	499	0.04%	499	0.04%	0
	예비비	13,585	1.00%	13,400	1.00%	185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 후원안내 |

- 일 반 후 원 : 생활인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 연 후 원 : 특정 생활인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후원
- 물 품 후 원 : 과일, 생필품(디펜드 소중형, 대형, 특대형(프리미엄), 하gis 특대형, 하gis 물티슈) 등
- 지 정 후 원 : 캠프,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예 금 주 : 재)꾼벤뚜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성프란치스코의집)

제 일 은 행 : 507-20-397452 / 국민은행: 556601-01-233237

부 산 은 행 : 036-01-033700-8 / 우리은행: 1005-900-942145

농협중앙회 : 936-01-105492 / 은행지로: 7634437

은행계좌 입금 외에 모금함, 해피빈, 지역단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후원참여도 있습니다.

담 당 자 : 박민정 ☎ 622-1652, 626-5766)

※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후원은 하고 싶는데 재화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시기 번거로우시죠?

정해진 금액과 기간이 없어서 더욱 부담 없는 모금함 후원은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담당자 : 박민정 ☎622-1652, 626-5766)

모금함 배부처

김창숙부띠꼬(수영점) ☎754-2080	김철현정형외과(다대포) ☎264-8010	대연성당 성물방	동아슈퍼(동대신동)
미샤 수영점 ☎751-4529	민들레(대연) ☎621-0573	박영호치과(대연) ☎628-6903	부산은행 대연점 ☎627-3119
부산은행 메트로시티점 ☎612-8290	알리안츠생명 제일지점 ☎631-9161	오륙도낙지볶음 ☎627-1471	이즈PC방(경성대앞) ☎626-1610
SC제일은행 대연지점 ☎628-0311	조선칼국수 경성대점 ☎622-5150	주왕산삼계탕 하단당리점 ☎291-1411	창희미용실(중동) ☎741-5793
평화장터(대연) ☎622-0991	한가죽요양병원 ☎752-6100	한국1마트(대연) ☎621-0791	웨이리마트경성대3호점 ☎628-3353
GS25 괴정본동점	SKT 경도대리점 ☎703-7952	SKT 해운대종합대리점 ☎701-8011	그 외 개인 및 타지방 배부